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이념 정향성(집합주의/개인주의)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¹⁾²⁾

이 순 형

서울대학교 아동가족학과 교수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인 한국,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과 삶의 만족간에 관계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Ed Diener의 전세계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네 개의 설문조사자료 중 동양 삼국의 자료만을 통계 분석했다. 한국,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인 개인주의는 다르지 않지만 집합주의는 유의하게 다르며, 청소년들이 평가한 삶의 만족 정도가 국가에 따라 각각 다르다. 이념 정향, 정서 경험, 외향성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가 유의했다. 이 연구에서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주는 물질적 생활환경의 조건뿐 아니라 사회문화적 환경의 영향을 고찰했다.

핵심어: 이념정향성 · 삶의 만족 · 정서경험

Parsons는 사회 구성원의 인식의 패턴 변수를 제시했다(Parsons and Shils, 1962). 개인은 사회적 사물의 존재(What they are)와 성취(What they do)를 포함한 다섯가지 개념적 패턴을 가지고 있다. 사람들은 다섯 가지 중에 일관된 개념 패턴을 보인다고 주장했다.

그는 5가지 패턴 변수 가운데 두 번째는 개인의 자기 정향성 대 집단 정향성을 들었다. 사회의 발전에 따라서 사람들의 인식이 귀속에서 성취로 나아간다고 가정했다. 그의 주장대로 국가의 발전 정도에 따라서 국민 개개인의 이념정향성이 집단 정향성에서 개인 정향성으로 변화하는지,

1. 이 논문은 자료를 제공해 주신 서울대학교 심리학과 조명한교수님께 깊이 감사드리고, 아울러 University of Illinois대학 심리학과 ED Diener교수에게도 감사드린다.

2. 이 논문은 1999년도 서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의 일부 연구비 보조로 이루어졌음.

특히 경제적 발전의 수준에 따라서 국민의 이념정향이 변화하는지는 의문이다.

두 번째 집합주의는 태어날 때부터 줄곧 개인이 강하고 단결이 잘 된 집단 내에 통합되어 있으며 평생 그 집단에 충성하는 대가로 그 집단이 개인을 보호해주는 사회를 의미한다. 개인주의란 여러 가지로 정의될 수 있지만, 사회집단의 이익보다도 개인의 이익을 우선으로 하는 이념으로 규정된다(Triandis, 1995).

집합주의 사회에서 사람들은 집단의 조화를 목적으로 한다. 집합주의 사회의 구성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체면이다. 타인의 시선을 고려해서 개인의 체면을 세워주는 것은 명예나 위신이므로 명예와 위신이 중시된다(Hofstede, 1991). 그리고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내적 자아, 즉 양심에 의해서 자기 행동을 비추어보기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는 한편, 집합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의 행위는 집단 성원의 공동자아의 기준에 비추어 보기 때문에 그 행위의 결과로 인해 수치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죄책감보다는 수치심을 더 중시한다.

Parsons는 사회가 발전함에 따라서 그 구성원들이 점차 개인주의 성향이 강해진다고 주장했다. 그의 이론에 따르면 사회가 초기 발전단계에서 집합주의적 성향을 띠다가 사회가 발전하면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것이다. 말하자면 집합주의적 성향은 사회가 덜 발달된 집단의 성향으로서 의식의 미분화라든가 집단 의존적 특성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 가설은 국가의 사회경제적 수준을 고려한 거시적 관점에서 입증되기에는 예

외가 있다. 이 모델이 일본 사회에는 적용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은 경제나 문화수준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에 이르렀지만, 일본 사회 전반에는 발전도상 국가 내지는 미개발국가에서 나타나는 집합주의 성향이 강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었던 것이다.

Hofstede(1991)는 각 국가의 개인주의 수치를 계산하여 각 국가를 차별화했다. 개인주의 국가로는 미국이 단연 1위로 92점, 일본은 22/23위로 46점, 한국은 43위로 18점, 대만은 44위로 17점이다. Hofstede(1991)는 의존성 점수와 개인주의 점수 사이에 부적 상관관계가 존재한다고 말했다. 즉 사람들이 집단내 의존성을 높게 보이는 문화권에서 권력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으며 가부장적 권력구조가 존재한다(Crozier, 1964).

어느 사회든 의사소통의 맥락을 살펴보면 소통 정보가 이미 풍부하게 제공된 상황에서 이루어지는 고맥락 의사소통과 상대적으로 그렇지 않은 저맥락의 의사소통으로 나눌 수 있는데(Hall, 1976), 집합주의 사회집단의 물질적 환경 속에 이미 대부분의 정보가 들어 있어서 개인간에 상세한 의사소통이 불필요하다고 본다. 오히려 개인주의 사회에서는 저맥락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데 그 환경 속에 정보가 별로 존재하지 않으므로 개인간에 구체적이고 상세한 정보가 대화를 통해서 교환되어야 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위 연구들은 문화적 상대론을 언급하고 있으나, 그 기저에는 서구 문명과 개인주의 사회에 대한 우월의식을 토대로 하고 있다. 집합주의 사회가 개인주의 사회에 비해서 덜 문명화된 사회라는 인식 위에

서 사회구성원들의 이념적 정향성을 논하고 있다. 사회가 문명화될수록 더 개인주의화되리라는 가정이다. 특히 집합주의를 개인의 이익보다는 집단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것이 어떻게 덜 문명화된 사회 구성원의 이념정향이고, 개인의 이익을 우선하는 것이 더 발달된 사회 구성원들의 이념정향인지는 동양적 사고에서는 이해되기 어렵다.

동양사회의 이념정향은 처음부터 서구의 것과 다르다. 동양의 유교문화는 직접 실험보다는 직관적 통찰을, 현재보다는 과거를 포함해 미래를 전망하며, 사회에도 전하기보다는 사회의 화합을 원하며, 자신의 성취를 집단의 화합과 일치될 때에만 의미를 두었다. 감정을 표출하기보다는 절제하기를 강조했다. 감정이나 기(氣)의 항상성(恒常性)을 믿지 않으니 자연 감정이나 현상의 변화를 당연지사로 간주했다. 감정이란 물처럼 형체도 없이 항상 변화하는 것으로 파악했다(論語). 다언(多言)보다는 무언(無言)이 보다 깊은 교감을 전하는 의사소통 방법으로 간주했다. 일일이 논리를 따지기보다는 이해하려는 의지를 통해서 목적을 달성해 나갔다. 이러한 유교적 사유는 서구의 실증 과학적 사고와는 차원이 다른 것인데 서구의 학자들은 이를 자신들의 잣대로 국가사회적 특성의 우월을 비교한 것이 문제라 할 수 있다. 즉 동서양의 전통적으로 형성해 온 이념 정향이 다른데 그것을 무시한 채 현재 국민들의 의식을 개인주의 가치모델로 일직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근접해 위치하며 인구나 사회 문화적으로 유사한 한국, 중국과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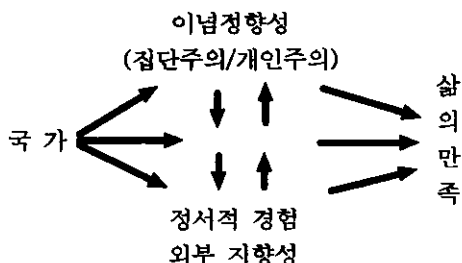
본 세 국가의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이념 정향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련성을 밝히려 한다. 세 국가는 역사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유사하지만 실상 세 국가는 내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세 국가가 전통적으로 유교문화권에 속해 있다는 공통점이 있으며, 친족에 대한 결집력이 강한 공통점을 지니고 있으나 내부적으로는 다소의 차이가 있다. 중국인은 친가(親家)에 대한 결집력이 강하여 동족부락은 대부분 동성 친족집단이다(이광규, 1989). 한국인은 처가(妻家)와 외가(外家)에 대한 결속력이 있어 동족부락에는 이성부락이 있는데 이들은 대개 사위와 한 마을에 거주한 까닭에 생긴 현상이다.

중국인은 일상생활에서 여성을 위하지만 여성을 자신의 집에 온 손님처럼 존대하고 위할 뿐 실제로 여성의 권위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한국인은 부인을 존중하고 그에게 안채인 내적 공간에서 권위와 권한을 인정한다. 일본인은 부인을 경시하고 부인의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의사소통 방식에도 차이를 보여서 한국인은 속마음을 직설적으로 말하고, 중국인은 말을 삼가고, 일본인은 상대의 체면을 고려해 속마음과 다른 말을 예를 갖추어 한다. 실제로 일본은 실용적이고 감각적이며 사교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중국은 말이 적고 자기 표현을 삼가고 근검절약하고 신용을 얻기 힘들나 일단 신용을 얻으면 그를 지키는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인은 그들 중간에 위치한 국민성을 가지고 있다. 한국, 중국과 일본 사회간의 전통적 특성은 유사하

기 때문에 현재 이들 세 국가를 서구국가들과 비교시 나타나는 이질적 특성보다는 삼국의 특성이 유사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으나 현재 세 국가를 들여다볼 때 각각의 국가는 그 나름의 독자성과 고유성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독자성과 개별성은 한국, 중국과 일본의 국민성 차이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아동의 사회화 방식에도 반영되며 청소년들의 생활문화나 행동방식과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그뿐 아니라 전통적으로 형성된 이념 정향성은 청소년 자신의 정서 경험의 종류와 강도와도 관련될 것이다. 즉 집합주의적 성향이 강한 국가의 청소년들은 외부 지향성도 높을 것이며 이러한 외부 기대가 그들의 사회적 활동의 수준을 높이고 삶의 만족도와도 관계가 있을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 의식이 강한 국가의 청소년들은 외부 지향성 보다는 내부 지향성이 높을 것이며 외부의 집단 활동보다는 개별 활동을 더 선호할 것이다. 개인주의적 정향과 개인 중심의 행동방식이 그의 삶의 만족도에 관련될 것이다. 비록 경제수준이 다르고 사회발전의 수준이 다르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전통적 가치 지향성과 사회적 특성은 오늘날 청소년들의 의식,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감 평가에도 깊이 관여할 것으로 가정될 수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로부터 고찰된 이 연구의 모형은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다.



〈그림 1〉 이념 정향성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 모형

위의 연구모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구문제를 설정할 수 있다.

1. 국가별 청소년들의 이념정향성,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 수준이 유의하게 다른가?
 - 1-1.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정향성(집합주의 대 개인주의)이 유의하게 다른가?
 - 1-2.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의 정도가 유의하게 다른가?
 - 1-3.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정도가 유의하게 다른가?
2. 이념정향성은 정서적 경험 및 삶의 만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가?
 - 2-1. 집합주의는 정서적 경험 및 삶의 만족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 2-2. 개인주의는 정서적 경험 및 삶의 만족에 유의한 상관을 보이는가?
3.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정향성, 정서 경험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가 유의하게 다른가?

방법

1) 조사 대상

이 연구의 분석 대상은 Ed Diener의 전세계에 걸친 7,000여명에 달하는 표본(1995) 가운데 한국, 중국과 일본 자료만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조사대상은 모두 1,035명인데 그 가운데 한국 조사대상 277명(남154명, 여123명), 중국대상 558명(남418명, 여140명)과 일본조사대상 200명(남71명, 여129명)이다. 이들의 연령은 15세부터 30세까지에 해당되는데 이들중 85% 응답자는 18세부터 21세에 해당된다.

2) 조사 도구

조사 도구는 Ed Diener의 설문지 4개인데 이념정향성척도(문항32개)와 정서생활척도(문항26개)와 생활만족척도(문항10개)와 영역별 생활만족척도(문항21개), 외부생활선호척도(문항42개)가 포함된 59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각각의 조사도구의 내용과 문항구성은 아래 <표 1>과 같다.

대상 청소년들에게 가정의 소득을 상대적으로 구분지어 '매우 적다, 적다, 약간 적다'로 응답한 집단은 '하집단', '중간이다, 보통이다, 그저그렇다' 등은 중간 집단, '많은 편이다. 많다. 매우 많다' 등으로 응답한 집단을 '상집단'으로 분류했다.

설문의 내용은 대부분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어 각각의 구간별 점수를 1-5점까지 주었다. 그리고 이 자료를 SPSS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해서 통계 분석을 실시했다.

표 4. 도구의 문항 구성

도 구	문항수
도구1. <가치정향성>	32
도구2. <정서생활>	26
정서경험정도	10
긍정정서 경험빈도	4
부정정서 경험빈도	4
긍정정서 경험강도	4
부정정서 경험강도	4
도구3. <생활만족>	10
생활 만족도	5
이상적 생활 만족도	5
도구4. <영역별 생활만족평정>	21
생활여건	3
학교생활	5
여가생활	6
종교와 스포츠	2
자신과 주위세계	5
도구5. <외부지향생활선호척도>	42
대인간 교제를 즐김	6
독자적 활동을 즐김	6
사회적 활동을 선호	6
자기주장	6
온정성	6
감각추구	6
사교시간	6

결 과

1. 국가별 청소년들의 이념 및 삶의 만족 수준

1)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

동양 삼국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을 밝혀 보면 이들의 집합주의 정향은 매우 높은 편이다. 세 집단간 차이도 유의해서 연구문제 1-2가 가정했던 세 집단간 집합주의 정향성의 차이는 밝혀졌다. 중국 청소년들의 집합주의 의식은 월등히 높고 그 다

음은 한국과 일본 청소년의 수준은 유사하다. 이 결과만을 놓고 본다면 Parsons의 주장대로 경제발전과 개방의 결과로 인하여 그 사회의 집합주의 의식이 낮다는 현상을 입증해 주는 것이 되겠다. 그러나 이 도식대로라면 일본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의식은 현저하게 높고 중국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의식이 의미 있게 낮아야 한다. 한국, 중국과 일본은 동양의 유교문화권에 속하며 그 경제발전의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경제 수준이나 산업화의 지표로 본다면 일본은 세계 최고의 수준에 속하고 한국이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은 매우 낮은 수준에 속한다. 이러한 일련의 순서가 개인주의 의식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표2>에서 보면 삼국 청소년들의 개인주의 정향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세 집단의 개인주의 지향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 따라서 이 결과를 해석하는데 Parsons의 이론은 적용될 수 없다.

반면에 전통문화로 인한 집합주의 가치 가설이 이 결과에 부합된다. 동양 삼국의 유교문화권에서 집합주의 정향이 매우 높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유교권의 종주국으로 강한 부계 중심의 친족집단의식을 가지고 있다. 한국의 부계와 모계 및 처계와의 친족의식과 비교하면 중국의 부계 중심의 친족의식은 가장 강력하다(이광규, 1989).

표 2.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이념 정향과 생활만족의 평균분포

	한 국 평균	중 국 평균	일 본 평균
<가치지향>			
집합주의	60.29	86.48	59.56
개인주의	90.79	92.44	87.04
<정서생활>			
정서 경험 정도	26.85	24.91	28.49
긍정 정서 경험빈도	15.19	10.25	14.41
부정 정서 경험빈도	11.42	9.53	11.39
긍정 정서 경험강도	16.19	12.65	17.86
부정 정서 경험강도	14.29	11.61	17.12
<생활만족>			
생활 만족도	18.84	16.45	20.19
이상적 생활 만족도	25.26	19.85	25.72
<영역별 만족평정>			
생활여건	11.70	11.52	12.86
학교생활	19.07	18.17	20.30
여가생활	23.88	21.73	26.20
종교와스포츠	9.40	7.77	8.76
자신과주위세계	22.39	22.5	23.99
<외향성척도>			
대인간 어울림을 즐김	27.02	24.90	30.22
독자적 활동을 즐김	26.61	28.64	25.44
사회적 활동을 선호	26.16	24.86	28.27
자기주장	25.21	25.63	22.54
온정성	28.31	27.60	28.70
감각추구	21.27	22.04	26.21
사교시간	21.88	20.81	22.62

표 3.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이념정향성 비교

가치 지향	평 균	F	Scheffe'
집합주의	한국 61.83	254.70****	a
	중국 86.41		b
	일본 59.58		a
개인주의	한국 22.37		
	중국 22.56		
	일본 24.02		

2)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

삼국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의 정도를 살펴보았다. 정서 경험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 정서를 다양하게 경험하거나 그 경험 강도를 조사한 것이다. 세 국가집단의 청소년간에 정서경험의 차이가 유의했다. 정서적 경험의 빈도는 일본, 한국, 중국 청소년의 순서로 많이 경험한다고 응답했다. 긍정적 정서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이 유사한 수준이며, 중국 청소년들이 훨씬 낮은 수준이다. 부정적 정서 경험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즉 경험한 정서의 폭을 비교해 보면 한국과 일본이 정서 경험의 폭이 유사한데 비해서 중국청소년들의 정서 표현의 폭이 의미 있게 좁다. 이는 전통적으로 정서 표현을 절제하는 유교적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정서 경험의 강도는 삼국 청소년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 즉 일본 청소년들이 긍정적 정서든 부정적 정서든지 간에 가장 강렬한 경험을 보고했고 그 다음이 한국 청소년이다. 중국 청소년들의 정서 경험 강도가 상대적으로 가장 덜 강렬했다. 정서를 강렬하게 느끼고 경험하는 데에는

역시 일본인의 민감성을 꺾지 않을 수 없고 정서를 절제하는 데에는 중국인의 절제성을 꺾지 않을 수 없다.

정서적 경험과 더불어 청소년들의 외부 지향성을 조사해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여전히 국가간에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삼국 청소년들의 국민성의 차이를 밝힐 수 있다. 외향성의 여러 문항 가운데 긍정적 정서를 경험한 내용으로 대인 관계에 어울리고 그 관계를 선호하고 자주 참여하는 등의 문항들을 묶어 긍정적 정서 경험을 조사했을 때, 국가별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후 검증에 의하면 일본, 한국, 중국 청소년의 순서로 세 집단의 긍정적 정서 경험의 빈도와 강도가 각각 높게 응답했다. 이 내용에 포함된 하위 영역으로 사회적 활동을 즐기는 것, 온정성과 감각 추구의 면에서도 여전히 일본, 한국, 중국 청소년의 순으로 응답이 높게 나타났다. 일본 청소년들은 사고 모임에 기꺼이 참여하며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즐기고 온정을 보이며 감각을 민감하게 추구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정서의 경험을 살펴보면 이도 역시 일본, 한국, 중국 청소년의 순으로 높이 응답했다. 긍정적 정서나 부정적 정서나 그 경험 빈도와 경험 강도는 동일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독자적 활동을 즐기는 문항에서도 국가별 차이가 유의했다. Scheffe'의 추후검증에 의하면 중국, 한국, 일본 청소년의 서로 독자성 경험이 달랐다. 일본 청소년들이 타인과 어울리는 것을 강조하고 그에 익숙한 문화라면 비교적 중국청소년들은 스스로의 독자적 활동에 더 의미를 두고 있다고 하겠다. 자기 주장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중국 청소년

들은 비교적 사교 모임에 의미를 덜 두는 대신에 독자적 활동과 자기 주장이 상대적으로 분명하다고 하겠다.

한편 자기주장성에도 국가간 차이가 유의했다. Scheffe'의 추후검증에 의하면, 세 집단간 차이가 각각 의미 있게 나타났다.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로 청소년들의 자기 주장성 점수가 높았다.

표 3.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이념정향성 비교

정서경험		평 균	F	Scheffe'
긍정적 정서	한국	57.90	153.66****	a
	중국	47.33		b
	일본	60.81		c
부정적 정서	한국	25.69	106.47****	a
	중국	21.04		b
	일본	28.48		c
외향성1 (독자성)	한국	51.81	36.79****	a
	중국	54.30		b
	일본	28.31		c
외부지향 생활선호	한국	121.69	31.65****	a
	중국	118.50		b
	일본	129.97		c
전 체	한국	173.52	3.97*	a
	중국	173.08		b
	일본	177.92		c

3)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정도

삼국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정도를 조사했을 때 세 집단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추후검증으로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이 중국청소년들의 것에 비해 의미 있게 높았다. 즉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이 다소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고 중국 청소년들은 다소 낮은 만족감을 보고했다. 이러한 양상은 이상적 생활만족을 응답한 바, 즉 <표5>에서도 그대로 나타났다.

표 5.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의 생활만족도

정서경험		평 균	F	Scheffe'
생활 만족도	한국	18.72	37.58****	a
	중국	16.43		b
	일본	20.20		a
이상적 생활만족도	한국	25.69	97.89****	a
	중국	21.04		b
	일본	28.48		a

4) 이념 정향성과 삶의 만족

가치 지향과 생활만족도 간의 관계를 보면, 집합주의는 이상적 생활만족도와 부적인 상관관계($r = -.237, p < .0001$)가 있고, 집합주의와 생활만족도 간에도 부적인 상관관계($r = -.101, p < .001$)가 있다. 집합주의 가치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평가에 부정적으로 관련되고 있다. 그러나 개인주의는 생활만족도와 유의하지 않은 관계를 나타냈다. 이로부터 집합주의 가치지향이 강할수록 생활에 대한 만족은 낮지만, 개인주의 가치 지향 자체는 생활에 대한 만족도와 직접 관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청소년들에게 집합주의 가치나 개인주의 가치값은 -값을 가지나 유의도 검증 결과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중국의 청소년들에게 집합주의는 그들의 삶의 만족도와 정적으로 관련되고, 일본 청소년들의 집합주의 가치도 삶의 만족도에 정적으로 깊이 관련되었다. 일본 청소년들의 집합주의 의식과 삶의 만족도의 관계가 가장 강력한 정적 관계인 것은 그들의 전통적 의식을 이해하지 않고는 납득하기 어렵다.

흥미로운 것은 개인주의에 대한 삼국 청소년들의 생각인데 한국 청소년들의 개

인주의 가치는 삶의 만족과 부적 상관계수가 산출되나 의미 있는 관계는 아니다. 그런데 일본의 경우에 개인주의와 삶의 만족도와는 부적 상관이 실생활만족이나 이상적 생활만족에서나 일관되게 나타났다. 다만 유의도 검증을 거칠 만큼 큰 값이 아니라는 점으로 미루어보아 의미 있는 관계로 간주하기 어렵다. 그렇더라도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에게서 개인주의와 삶의 만족 간에 부적 상관계수가 나타난다는 사실은 기능주의 사회학자들의 관점으로 설명되지 못하며 이는 전통적 의식차이로 설명될 수 있다. 단 전통사회의 의식이 현재 사회의 의식을 이루고 있어 그 사회 속에서 성장하는 청소년들의 의식과 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이 점은 후에 회귀방정식에서 명백한 수치로 나타나는데 변수 7개를 동시에 넣고 회귀방정식을 만들었을 때 개인

주의의 b값이 유의한 값으로 검증되어 개인주의의 효과를 밝혀주었다).

총체적 생활만족 문항과 달리 청소년들에게 생활여건, 학교생활, 여가생활과 스포츠, 종교, 자신과 주변세계를 나누어 생활영역별로 만족도를 평가하도록 한 결과 <표6>에서 보듯 이념적 정향성이 달리 나타나고 있다. 즉 중국의 경우에 집합주의 이념적 정향성은 생활여건, 학교생활, 여가생활과 스포츠, 종교 등 생활 영역 대부분에서 삶의 만족도와 깊이 관련되고 있다. 그리고 개인주의 정향은 이웃과 주변사람의 영역에 대해서는 삶의 만족에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예외적 경우가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집합주의 정향이나 개인주의 정향이 생활 영역별 만족감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결과를 통해서 이념의 정향은 하나의 일직선상에

표 6. 한국, 중국, 일본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과 만족 평정

	상관계수 (빈도)	생활여건	학교생활	여가생활	종교와 스포츠	자신과 주위세계
한 국	집합주의	-.0546 (262)	.0361 (225)	-.0214 (224)	.0437 (230)	.0276 (261)
	개인주의	-.0141 (262)	.0598 (224)	.0616 (225)	.0432 (230)	.0692 (261)
중 국	집합주의	.1545*** (486)	.1974*** (480)	.1807*** (452)	.1435*** (487)	.3584*** (477)
	개인주의	.0294 (478)	.0637 (468)	.0743 (448)	.0691 (477)	.2696*** (465)
일 본	집합주의	.0866 (189)	-.1286 (190)	.0790 (180)	.0607 (127)	.0724 (190)
	개인주의	.0593 (186)	-.0163 (188)	-.0697 (177)	.0205 (126)	.0543 (188)

놓인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독립된 차원의 것인지를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는 일직선상의 양극단에 위치한 정향이라고 가정해왔다. 한편 두 이념 정향은 별개의 독립된 차원이라는 가정도 제시되어 왔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는 후자의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2.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 정서 경험, 외적 지향성과 삶의 만족

이 연구는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성은 그의 정서 경험은 물론 외적 지향성과 삶의 만족과도 관련됨을 가정했었다. 자료 분석 결과, 집합주의 정향은 긍정적 정서뿐 아니라 부정적 정서와도 부적 상관을 나타냈다. 이 사실은 집합주의 정향이 높은 개인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서 표현을 절제한다는 전통사회의 유학적 규범을 내면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집합주의 정향은 독자성과 자기 주장과 상관되고, 외향성2, 즉 타인에 대한 관심, 참여 등의 외부지향성과는 관계가 없다. 그리고 집합주의는 삶의 만족과는 부적 상관관계로 나타났다. 즉 집합주의 정향이 강할수록 청소년의 삶의 만족은 감소된다는 것이다. 한편 개인주의 정향은 부정적 정서와 상관되고 독자성과 자기 주장성은 물론 외부 지향 생활 선호성과 깊

이 관련되나 삶의 만족과는 직접적 관계가 없음이 밝혀졌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는 개인주의 이념적 정향보다는 긍정적 정서의 경험, 독자성과 자기 주장 및 외부지향생활 선호성과 깊이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타인과의 어울림을 즐긴다는 하위 범주는 삶의 만족과 가장 강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장에서는 삼국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어떤 변수들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각각의 변수들의 크기를 비교해 보았다. <표7>에서와 같이 이념적 정향성인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정서 경험의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와 독자성과 외부지향생활선호성의 7개 변수를 넣어 청소년들의 생활만족도를 설명하는 회귀방정식을 분석했더니 이 방정식의 R²는 .292로 7개 변수의 설명력이 약 30%가 되는 셈이다. 각각의 b 값을 비교해보면 삼국의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을 설명하는 변수들의 크기를 가늠할 수 있다.

집합주의가 삶의 만족에 부적 영향을 미치는 반면에 개인주의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별 영향을 미치고 못했는데 그도 나라마다 다르다. 한국과 일본의 경우가 그러하지만, 중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긍정적 정서의 경험이 삶의 만족에

표 7. 변수간의 상관관계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독자성 (1)	외부지향 생활선호 (2)	외향성 (1+2)	생활 만족도
집합주의	-.277***	-.269***	.286***	.020	.140***	-.101**
개인주의	.018	.397***	.397***	.132***	.293***	-.030
생활만족	.449***	.041	.102**	.322***	.320***	1.000

는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부정적 정서의 경험은 반드시 삶의 불만족과 연 계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가 그렇다.

외향성을 자기 주도성과 외부 지향성으 로 정의했을 때 외향성은 삶의 만족에 영 향을 미친다. 한국과 중국의 경우와 자기 주도성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지 못 하는 대신에 일본의 경우에는 큰 영향을 미친다. 타인에 관심을 가지고 온정적이 며 그와의 어울림을 기꺼이 참여하고 즐 기는 외향성2는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하나 중국의 경우에는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흥미롭게도 한국의 경우에 긍정적 정서 의 경험보다도 삶의 만족에 더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상대적 소득변수이다. 그러나 중국이나 일본의 경우에는 상대 소득이 별로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표8>에서 보듯이 동양 삼국의 청소년 들의 삶의 만족은 집단별로 중히 영향을 미치는 변수와 그 영향력의 크기가 달랐 다. 이것은 국가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 화적 배경이 그 국민의 의식을 결정짓고

나아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논 의

이 연구는 동양의 유교문화권에 속하는 한국, 중국과 일본이 수천 년 동안 경험 한 역사 문화적 특성이 다를 것이고 그 차이는 국민들의 의식을 달리 형성할 것 이라고 가정했다. 이 맥락에서 보면 국가 구성원인 성인뿐 아니라 청소년들의 의식 도 다를 것이며 이 의식이 생활만족과도 깊이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가정했다. 따 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두 가지인데 하나 는 국가별 청소년들의 이념적 정향성과 생활만족감의 차이를 밝히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념적 정향, 정서 경험과 외부 지향성 등의 변수와 삶의 만족 사이의 보 편적 관계를 이론적으로 밝히는 것이다. 전자는 국가문화간 개별성을 후자는 보편 성을 밝히려는 것이다.

전세계 100여개국에 넘는 국가의 청소년 7,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표 8. 국가별 변수의 영향력의 크기 비교

	전 체	한 국	중 국	일 본
집합주의	-.001	.059	.083	.050
개인주의	-.102*	-.142*	.067	-.156
긍정정서	.401****	.380****	.218****	.412****
부정정서	-.086	.099	-.150**	-.161*
외향성 1	.079*	.111	.074	.158*
외향성 2	.172**	.045	.242****	.131
상대소득	.158****	.264****	.087	.089
R ²	.292	.317	.216	.315

미국의 심리학자 Ed Diener의 방대한 자료 가운데 한국, 중국과 일본 청소년의 자료 1,035 사례만을 뽑아서 통계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아래와 같이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첫째 청소년들의 사회의식인 이념 정향 가운데 집합주의는 국가별로 현저하게 다르다. 개인주의 정향에는 큰 차이가 없는 데도 불구하고 집합주의 정향이 이처럼 국가별로 다른 것은 기능주의자들의 가설, 즉 사회경제적 여건이 향상되면 개인주의 정향이 강화된다는 가설로 증명되지 않는다. 세 국가의 사회경제적 발전 수준에 따라서 집합주의가 점차 완화된다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설명이나, 개인주의가 발전된다는 것은 들어 맞지 않는 설명이다. 세 국가간 개인주의 정향은 유사한데 집합주의만 유의하게 다른 것은 국가가 사회 역사적으로 형성한 전통의식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의 결과에서 집합주의와 개인주의가 서로 다르게 분포되고 기능하는 것을 통해서 집합주의가 개인주의와 일직선상의 양극단에 속하는 이념 정향이 아니라 별개의 독립된 차원의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에 대해서는 후속연구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본다.

둘째 한국, 중국, 일본청소년들의 정서적 경험의 빈도와 강도는 삶의 만족에 깊이 관련된다. 특히 긍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것은 삶의 만족도와 크게 관련되는데 이 관계도 국가에 따라서 달리 나타났다. 즉 한국, 중국과 일본 청소년들의 긍정적 정서 경험, 부정적 정서 경험, 독자성과 자기 주장, 외부 지향성 등에서 현저한 차이를 드러냈다. 독자성과 자기 주장성

을 포함한 외향성은 중국, 한국과 일본청소년들의 순위로 낮아졌다. 그러나 나머지 긍정적 정서, 부정적 정서, 외부지향성 등에서는 일본, 한국, 중국의 순으로 낮아졌다. 중국 청소년들에게서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정서 표현이 절제된 것은 유교 문화권에서의 정서 표출을 자제시키는 규범에 의한 것이다. 전통적으로 일본의 문화가 한국이나 중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각을 추구하고 감정을 표현한다는 것이 현재 청소년들의 의식에도 여전히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한, 중, 일본의 국가별 청소년들이 평가한 삶의 만족 정도가 각각 다르다. 일본, 한국, 중국의 순서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이 낮았다. 현재 청소년들의 처한 물질적 생활환경의 조건뿐 아니라 사회환경이 자신의 삶에 미치는 영향을 통틀어 평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 순서는 현재 국가별 국민소득의 순이기 때문에 이러한 설명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개인 특성 변수 가운데 상대소득이 청소년의 생활 만족과 관련된다. 상대소득이 높을수록 청소년의 생활만족은 높아진다. 그런데 회귀 분석 결과에서는 국가마다 달라서 상대소득의 설명력이 유의한 국가는 한국뿐이었다. 아마도 한국의 청소년들은 중국과 일본의 청소년들이 느끼는 상대적 소득의 격차보다 더 민감하게 그 격차를 느끼고 그러한 박탈감이 삶의 만족감과 깊이 관련된다는 것이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적은 이론적으로 이념 정향, 정서 경험, 외부 지향성과 삶의 만족간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연구모형으로 제시한 것은 청소년들의 이념 정향, 정서적 경험, 외부 지

향성 등의 변수는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깊이 관련된다는 것이었다. 이 연구모형은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 현상을 상당히 많은 부분, 1/4 이상을 설명했다. 이 연구모형에 상대 소득 변수를 첨가했을 때 역시 이론적 모형의 설명력이 더 높아졌다. 청소년들이 평가한 가정의 상대적 소득 변수도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도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인데 집합주의, 개인주의와 긍정적 정서와 부정적 정서, 독자성, 외부지향 생활선호성, 7개 변수의 설명력은 31%, 약 1/3 정도이다.

결론적으로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은 긍정적 정서를 빈번히 강렬하게 경험하는 것과 우선적으로 관련된다.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상대적 소득도 관계가 있지만 상대적 소득은 사회의 경제 사정에 따라 달리 관련되는 듯하다. 이러한 청소년 개인이나 가정 변수만큼 청소년들의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국가의 역사문화적 특성이다.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은 청소년들의 이념적 정향을 결정짓고 그들의 삶의 만족에도 영향을 미친다.

참고문헌

논어

- 이광규 (1989). *한국의 가족과 종족*. 서울: 민음사.
- 이순형 (1996). 가족주의, 집합주의, 성취지향성과 양육가치간의 관계. *한국사회학*, 제30집, 545-573.
- Crozier, M. (1964). *The bureaucratic phenomenon*.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Hall, E. T. (1976). *Beyond culture*. N. Y.: Doubleday Anchor Books.
- Hofstede, G. (1980). *Culture's consequences: International differences in work related values*. Beverly Hills CA: Sage Publications.
- Hofstede, G. (1991). *Culture and organizations: Software of the mind*. London: McGraw Hills.
- Inkeles, A. & Levinson, D. (1954). National character : The study of modal personality and sociocultural system's.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Vol. 4.
- Parsons T. & Shils, E. (1962). *Toward a general theory of action*. N. Y. : Harper & Row.
- Triandis, H. C. (1995).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ical
orientation(collectivism/individualism)
and life satisfaction among
the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dolescents**

Soon-Hyung Yi

Dept. of Child Development & Family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intends to reveal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ideological orientation (collectivism/individualism) and the level of life-satisfaction by analysing the data of the three Asian countries among the Ed Diener's world-wide data.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is analysis, there is a meaningful difference in collective orientation among Korean, Chinese and Japanese adolescents, but not in individualism, and their levels of life-satisfaction differ respectively. And the level of life-satisfaction has the significant relation with ideological orientation, emotional experiments and extravacy. This paper reviewed not only the physical condition but also sociocultural context as the factors having influence on the life-satisfaction.

**Key Words: ideological orientation • emotional experiment
• life satisfaction**